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견학기

A Visit to Seoul St. Mary's Hospital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길채

Kim, Khil-Chae

2009년 2월 14일(토) 학회의 정기행사인 병원견학회로서 개원을 앞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하였다. 회원 약75명이 참가하여 병원에서 준비한 그동안의 건립과정을 보고받았다. 또한 설계를 주관해온 삼우설계사무소로부터 도면을 제공받고 설계과정동안 고민해온 여러 사항들을 설명을 들었다. 특히 실내 인테리어에 관여해온 RTKL의 보우헤어 부사장과 서민석씨로부터 내부 재료와 색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에 감사드린다.일본 고흥자 집합주택의 경향

■ 건축 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외 11필지
지역/지구	3중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건축주	학교법인 가톨릭대학
대지면적	110,147.00m ²
건축면적	35,881.74m ²
연면적	327,057.67m ²
규모	지하 6층 / 지상22층
최고높이	113.5 m
주차대수	1,975대
건폐율	32.58%
용적률	190.16%
병상수	1,078병상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외장재료	커튼월, 테라코타 판넬
준공	2008.12

■ 설계 설명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장기 발전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가톨릭 의료과학 단지의 기반이자, 초일류 전문진료센터로 도약하는 터전이 될 새병원을 요청했다. 1,200병상 규모의 지하6층, 지상22층의 새병원 계획으로 성모 병원의 명성을 이어 한국을 대표할 메디컬 랜드마크를 제안한다.

치열한 의료 시장 경쟁과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병원은 전문 진료 센터를 중심으로 건립 계획을 세웠다. 가톨릭 의대와 기존의 강남 성모 병원을 포괄함으로써 의료인들에게는 최적화된 연구,교육,진료 기능을 보유할 의료 과학 단지, 환자들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자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는 단지를 구상했다. 고난도 진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부의 비율을 높였다. 직원 공간과 환자 공간을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과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넓은 아트리움을 적용한 호스피털 스트리트는 밝고 쾌적한 동선을 형성한다. 첨단 의료 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능성 뿐 아니라, 아름답고 친숙한 병원이 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병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크게 진료 기능 위주의 저층부와 병동 위주의 타워로 공간을 구획했으나 병원에서 차용하는 대칭 구조는 거부했다. 병동부를 비대칭으로 계획함으로써 대칭 구조의 권위적 중압감에서 탈피해 심리적 편안함을 주고자 한 것이다. 수평 노출 바로 수평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안정감을 더하고, 입



중앙로비의 브릿지에서 참가회원들의 열띤 견학전

면의 질감 효과를 냈다. 또한 곡선을 도입하여 외형적으로도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라 부드러움을 강조했다. 저층부의 커다란 메스는 기능 단위로 분절하면서 세트백(Set back)을 적용해 휴먼 스케일의 안정감을 주고 지루함을 덜었다.

치열한 의료 시장 경쟁과 급증하는 환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는 장기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가톨릭 의료 과학단지의 기반이자 초일류 전문 센터로 도약하는 터전이 될 새 병원을 요청했다. 가톨릭 의대와 기존의 강남 성모 병원을 포괄함으로써 의료인들에게는 최적화된 연구, 교육, 진료 기능을 지원하고 환자에게는 안락한 병원이 될 수 있는 단지를 구상했다. 외래 진료비의 비율을 높이며 직원 공간과 환자 공간을 분리해 업무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넓은 아트리움과 이어지는 호스피털 스트리트는 밝고 쾌적한 동선을 형성한다. 첨단 의료 센터로서 기능성뿐만 아니라 친숙함이 깃든 병원이 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병원에서 흔히 차용하는 대칭 구조를 피하고 병동부를 비대칭으로 계획함으로써 권위적 중압감을 덜고자 했다. 입면계획에서 수평적 요소를 강조해 안정감을 더하고 곡선을 도입해 부드러움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료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자 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에 따라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장기 계획으로 가톨릭 의료 과학 단지의 기반이 되고 전문 의료센터로 도약하는 새병원을 계획하게 되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가톨릭대학 의과대학과 기존의 강남 성모병원을 포괄하는 의료 센터로 의료인들에게는 최적화된 연구, 교육그 진료 기능을 지원하고 환자에게는 안락한 치유 환경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새병원은 외래 진료의 비율을 높이면서, 외래 환자의 방문시 병원의 이미지를 전하게 될 아트리움과 호스피털 스트리트 등을 구성하여 넓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공간과 환자들의 공간을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첨단 의료 센터로서 기능성뿐만 아니라 친숙함이 깃든 병원이 되도록 계획한 것이다.

병원에서 흔히 차용하는 대칭 구조를 피하고 병동부를 비대칭으로 계획함으로써 권위적 중압감을 덜도록 하였다. 또한 입면 계획에서 수평적 요소를 강조하여 안정감을 더하고 곡선을 도입해 부드러움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감사패를 전달하는 본학회 이특구회장님과 RTKL의 보우헤어 부사장



감사패를 전달하는 본학회 이특구회장님과 성모병원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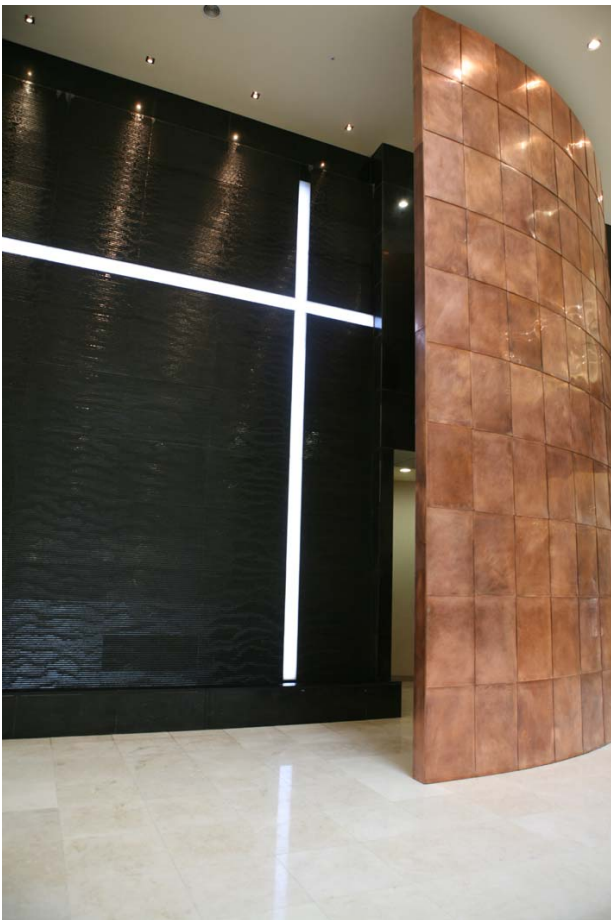
감사패를 전달하는 본학회 이특구회장님과 설계를 담당한 (주)삼우 김치현 팀장



병동부 병실의 벽과 바닥의 디테일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디테일



1층 기도실의 입구



중앙로비 전경